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9호 [루게 제24957호] 주체104(2015)년 6월 28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넷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로지아 나호드 카 포르마트출판사에서 3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를 10일 뽄스카 도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체코슬로벤스프고판사 당이 1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가 1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감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프놈펜

감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보자인민당창건 64년에 즈음하여 귀 당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자의 친선형조판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며, 면서 나라의 번영과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4(2015)년 6월 27일

평양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5일 메히코인민사회민주당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교포누기대학의 인사들과 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령도성단체 장원들이 참가하였다.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수 프호리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수 프호리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수 프호리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수 프호리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김정일고령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이끄시면서 모든것을 혁신적이며 진취적으로 창조해나가신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격찬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헤수 프호리가, 서기장으로 바스갈 존체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을 맞으며 려한 모인,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기념위원회 결성식이 3일에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기념무지개인민련합, 기념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주체사상연구 기념전국위원회, 기념주체사상연구 기념전국위원회, 기념조선친선협회, 기념 피나크리주체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체사상연구 기념전국위원회 위원장 기네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연설에서 올해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라고 하면서 일찌기 주체사상

을 창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수 프호리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수 프호리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을 창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수 프호리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수 프호리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수 프호리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수 프호리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수 프호리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수 프호리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면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메히코인민사회민주당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메히코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메히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카를로스 에르난데스가, 부위원장으로 메히코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후안 캄보스 베가가, 서기장으로 김일성, 김정일동지회 메히코 친우협회 위원장 안드레스 가스카 알레스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메히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카를로스 에르난데스는 메히코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 연구조직 책임인사들을 망라하는 전국조직 위원회를 결성한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신들의 용감한 분분이라고 강조하였다.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며 정속집회, 강연회, 업적토론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자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높이

5월 27일 수산사업소 원양선단 첫 출항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고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정책입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5월27일수산사업소의 원양선단이 출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물고기는 가까운바다에서도 잡고 먼바다에서도 잡으며 나가면서도 잡고 들어오면서도 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양어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지난 3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5월27일 수산사업소건설장소를 몸소 찾으시고 사업소를 현대적인 원양수산업기지로 꾸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을 관철함으로써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해줄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과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물고기대풍을 마련하기 위해 먼바다로 나가는 5월27일수산사업소 원양선단의 첫 출항식이 27일에 진행되었다.

출항식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을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5월 27일 수산사업소건설을 발기하시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사업소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양선단들을 내보내어 물고기를 잡아오는것과 함께 물고기를 저장, 가공하는 사업소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어구, 자재들과 성능높은 고기배들을 보내주시고 배이름도 《황금해》라고 명명해주시였다고 그들은 격정에 넘쳐 말

하였다. 그들은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업소가 선행적역할을 다할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은 언제나 심장에 안고 맹렬한 노력을 벌여 10월의 대추전을 벌이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5월 27일 수산사업소 원양선단 첫 출항.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을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5월 27일 수산사업소건설을 발기하시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사업소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제시한 물고기잡이목표를 기어이 정밀함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오늘날 만선의 배고동소리는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울리는 승리의 포성이며 원수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피성이라고 하면서 몸은 비록 조국을 멀리 떠나있어도 《HIC에 게심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매일 선창마다 물고기를 가득 채울것이라고 말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를 삼파 투쟁의 좌우명으로 심장에 조아라고 날마다의 엄숙한 조건에서도 파감한 어로권을 버려 버린 만선기를 휘날릴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수시로 변동되는 어항조건에 맞게 과학적이고 주동적인 어정탐색을 진행하여 중심어장을 신속히 찾았어야 집중적인 어로전으로 밀려드는 물고기떼들을 잡아내며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어획고를 결정적으로 높여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선박들사이에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물고기잡이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급동능력을 더욱 높이고 물고기를 잡는족족 가공과 운반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물고기대풍을 마련함으로써 이 땅위에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넘치게 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강계정신의 위력 떨치며 자랑찬 위훈 창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강도사람들은 우리 당 력사에서 가장 존엄한 시련의 시기에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혁명의 난국을 앞장에서 헤치며 락원의 행군길을 열어놓은것처럼 앞으로도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기수가 되고 전위대가 되어야 합니다.》

은 나라에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자강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마련되고있다.

주체102(2013)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계시의 여러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강계정신을 더욱 빛내이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모반분야단의 공언무대도 펼쳐주시였다.

지난 2년간은 자강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뜻을 받들어 1년을 10년맞잡이로 주름잡으며 비약과 혁신, 기적의 일익을 지어낸 위훈창조의 날과 달이었다.

북방의 3월 5일청년광산에 현대적인 폴리탄공장이 조업하여 생산의 정보화, 과학화가 실현되었으며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속에 최첨단의 경계에 올라선 주체적인 유색야금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하고있다.

우리 식 CNC기술로 세계를

향해나가는 최첨단기계공장을 비롯한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 무인화의 경쟁열풍이 일고있다.

전력공업, 경공업부문에서 첨단과학기술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위원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홍주청년1호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조직과 지휘의 정보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다그쳐지고있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최첨단과학기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강계고려약가공공장과 자강산중합식료공장이 무인화의 문을 열어제치고 강계포도도출공장, 강계고려약공장, 강계목재가공공장을 비롯한 공장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들이 생산되고있다.

도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최첨단의 기계공장에서 연구개발한 현대적인 지열설비들이 인공열과 장자강버섯공장에 도입되어 큰 은을 내고 있다. 도중소발전소관리국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풍력발전기를 제작하여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지고있다. 도에서는 지난해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고 누에고치생산에서 성

과를 거두어 인민생활향상의 큰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강계제지공장, 홍주담공장, 강계오리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축산기지에서 생산이 정상화되어 기계공업부분의 로동계급과 강계시민들에게 매일 고기와 알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다. 올해초 자강청계공장이 일떠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현대적인 축산기지와 함께, 강계의 닭공장, 목장들, 협동농장들에서 축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게 되었다. 장자강이 계속 오르고있고 강계포도출공장개건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맛좋은 음료가 생산되고있다. 강계가 선진시대의 사회주의 선경으로 몰라보게 변모되었다. 장자강기술을 따라 아스팔트 도로와 유보도가 새로 뻗어나갔고 장자강변에 장자강인민유원지, 종합적인 대중문화기치인 궁궐같은 인공원, 강계체육공원, 영화관, 배형식의 식당이 일떠섰고 강변북쪽에 대형분수대가 생겨났다. 장자강을 끼고 뻗어나간 홍주-공인철길연선의 면모가 일떠섰다. 올해 봄에 강계의 저지들과 장자강기술에 살구나무, 들메나무, 은행나무, 노란 수양버드나무 등 수천그루의 나무를 심어 강계시는 공민들의 도시로 더욱 아름다워졌다. 도도시관리국이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교양을 하루빨리 실현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사회적학술의 거점, 과학기술보급기지로 훌륭히 개건되었다.

지난 3월 도에서는 4 일동안에 2만 6천여㎡의 평림로취수구 준공형공사, 제방방수공사를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해제하였다. 당의 부름이래면 진행길도 웃으며 헤치고 천만산악도 떠돌아 다니다 메우는 자강도사람들의 불굴의 의지, 결사관철의 투쟁본래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 주도됨에 도의 일꾼들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이 되는 10월의 대추전을 자랑한 로력적성으로 빛내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에속원, 도육아원, 장자산소년단야영소, 자강도체육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 도체육관, 도도시설계연구소, 양로원, 양생원을 비롯한 10여개에 달하는 대상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도에서는 올해안으로 홍주청년3호발전소, 초산2호발전소, 자성관 귀인발전소, 중앙군 중상발전소를 비롯한 5개의 중소형발전소건설을 완공하기 위해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와 발전설비보장에 큰 힘을 쏟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데로 강계정신이 창조된 교장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까지 높이 울려 퍼져나가기 위한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강하게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등 세 등

10월의 대추전을 향하여

나무를 사철 심을수 있는 식물생장활성제 연구개발

자광수신의 주제 1 사범대학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심기를 계절에 구애없이 사철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내야 합니다.》

사철 나무심기를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자광수신의 주제 1 사범대학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대학의 생물화학연구소 연구사 홍선화동무가 계절에 구애없이 사철 나무심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것을 높이 받들고 자광수신의 주제 1 사범대학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대학의 생물화학연구소 연구사 홍선화동무가 계절에 구애없이 사철 나무심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것을 높이 받들고 자광수신의 주제 1 사범대학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대학의 생물화학연구소 연구사 홍선화동무가 계절에 구애없이 사철 나무심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것을 높이 받들고 자광수신의 주제 1 사범대학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대학의 생물화학연구소 연구사 홍선화동무가 계절에 구애없이 사철 나무심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것을 높이 받들고 자광수신의 주제 1 사범대학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도 큰 나무를 옮겨심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개발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광수신의 주제 1 사범대학 생물화학연구소 소장이었던 장만철동무가 이미전에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만들어냈다. 그는 핵산수성물질을 푸린유도체를 주재료로 합성하여 만든 식물생장활성제를 오랜 세월 산림과 원림부문에 도입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즐기치게 벌려왔다.

장만철동무의 안내 홍선화동무는 사철 나무심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것을 높이 받들고 자광수신의 주제 1 사범대학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대학의 생물화학연구소 연구사 홍선화동무가 계절에 구애없이 사철 나무심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것을 높이 받들고 자광수신의 주제 1 사범대학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대학의 생물화학연구소 연구사 홍선화동무가 계절에 구애없이 사철 나무심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것을 높이 받들고 자광수신의 주제 1 사범대학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대학의 생물화학연구소 연구사 홍선화동무가 계절에 구애없이 사철 나무심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것을 높이 받들고 자광수신의 주제 1 사범대학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를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를 합성할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물들은 95%이상 보장할수 있다것이 입증되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물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경북종합대학 농생명부화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전설적령장의 불굴의 신념 옥천과 더불어 빛나리

옥천혁명사적지는 북창군 풍곡로동자구에 자리잡고있다. 병풍마냥 둘러싸여있는 산들에는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좌와 설백이고 햇빛을 받아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동강의 잔잔한 물결이 산촌의 정서를 한껏 돋구어준다.

하지만 옥천이 이름난것은 결코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그 경치에만 있는것이아닌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전설적령장의 장엄대단한 기상이 빛발 천정으로 하여 옥천혁명사적지는 오늘도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만대에 길이 빛날 투쟁과 업적으로 수놓아진 영광의 역사이며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생활과 투쟁의 불멸의 교과서입니다.»

인간의 신념은 준엄하고 어려운 때 그 진가를 나타낸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일시적 후퇴시기 처음으로 최고사령부자리잡았던 옥천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불굴의 신념과 의지, 배짱이 얼마나 굳고 담대한것인가를 보여주는 력사의 땅이다.

주제 62(1973)년 8월 어느날 덕천군(당시)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옥천기차국을 지났는가고 물으시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이곳에서 며칠 묵은 일이 있다고, 기차굴 근처에 누시터에 있을것이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여년전 세월이 흘렀어도 잊지 못하고도 추억하던 옥천혁명사적지의 누시터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깃들여있는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 옥천면 안학리에 위치한 옥천기차국에 도착하신것은 주제 39(1950)년 10월 16일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날부터 5일동안 옥천기차국의 로반우에 있는 열차를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소로 정하시고 서수가 귀일없이 떨어지는

굴을 하루에도 몇차례씩 드나드시면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성과적으로 지휘하시였으며 재진격을 위한 준비사업에도 구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옥천에 도착하신 그 이튿날이었다. 작전실에서 한밤을 꼬박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른아침 밖으로 나오시였다.

적들의 포성이 더 가까이에서 어지럽게 들려오고있었다. 평양에서 옥천까지의 적기체화부대의 진술이 불과 몇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가되니 최고사령부 성원들은 물론 수행성원들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안면이 걱정되어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몇번이나 간청드리였다. 하지만 언제나와 같이 태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뜻밖에도 여기 어디 누시터할만한 한대가 있겠는 데 거기에 나가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솜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이란 건공도 하고 후퇴도 하는 법이라고, 후퇴라고 해서 우리가 싸움에서 진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전략적후퇴를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 후퇴를 통하여 시간을 쟁취하고 힘을 가적하여 다시 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공포없이 들려오는 적들의 포소리를 짓누르며 울려 퍼지는 그이의 우렁우렁한 신음에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우라와 군인이 말끔히 가시려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벌써 이겼구나 하는 생각만이 차고넘쳤다.

강기슭으로 내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위우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어 주변의 경치를 부감하시였다.

하지만 그때 일군들이 어떻게 알수 있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의 배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할 구상을 무르익히고계시는줄.

사면팔방에서 비명과 땅과 땅, 대포로 무장한 수많은 적들이 미친듯이 쏟아지고있는 것처럼 준엄한 시각에 태연자약하게 누시터에 나오시어 원수

들을 격멸할 작전을 구상하신 우리 수령님같은 령장이 과연 있었는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한 한 일군은 그때를 못 잊어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누시터에서 돌아오신 그길로 작전실로 가시어 작전도우에 직후 제2전선형성안을 그으시였다가 감동에 젖어 이야기하시였다.

신념은 혁명의 생명이다. 신념을 떠난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국과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막아나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더욱 굳게 가다듬으신것은 혁명적신념과 의지였다.

미국놈들이 아무리 발판을 해도 조선인민을 굴복시키지 않는다. 미국놈들을 용서치 않을것이다라는 명적의 의지로 심장을 꿰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이 수시로 들어닥치는 위험천만한 곳에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사업하시였다. 지금도 옥천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객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업하신터 열차와 토장국을 구수하게 끓여놓으면 만족하다고 하시였다.

아무리 전쟁시기라고 하여도 어찌 우리 수령님께 올리는 식사를 소홀히 할수 있겠는가.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시고 밤낮이 따로 없이 일하시는 어머니수령님의 건강과 안면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제일 큰 소원이었다.

하긴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마음도 마다하시고 수명과 인민이 고크를 같이할 때만이 혁명과 전쟁은 승리한다고 하시며 일군들과 인민들에게 심신을 북돋아주시였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이렇듯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곳에서 그처럼 간고한 시련의 시기를 거치며 최고사령부 간부회의를 서시고 후퇴하여 들어오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에게 후퇴의 전략적목적을 알려 주고 배짱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해주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야외식당으로 리용하는 집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산골의 청신한 대기와 주변경치에 대하여 알아보시면서 이곳에 휴식터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여름과 겨울철에 근로자들이 휴식할수 있는 휴식터를 세우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어려운 전쟁시기이고 일시적인 후퇴를 하고있던 때여서 모두가 전쟁의 운명에 대하여서만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근로자들이 경치좋은 곳에서 마음껏 휴식도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미국놈들을 몰아낸 이 땅에 펼쳐질 인민의 락원을 구상하고계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은 지금 놈들의 어려운 판타지사를 하고있으며 귀중한 인민의 아들들이 피흘러 싸우고있는 이 시각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긴장해야 하며 우선 식생활자체도 개선하고 하시며 미국놈들을 몰아낸 이 땅에 펼쳐질 인민의 락원을 구상하고계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은 지금 놈들의 어려운 판타지사를 하고있으며 귀중한 인민의 아들들이 피흘러 싸우고있는 이 시각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긴장해야 하며 우선 식생활자체도 개선하고 하시며 미국놈들을 몰아낸 이 땅에 펼쳐질 인민의 락원을 구상하고계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은 지금 놈들의 어려운 판타지사를 하고있으며 귀중한 인민의 아들들이 피흘러 싸우고있는 이 시각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긴장해야 하며 우선 식생활자체도 개선하고 하시며 미국놈들을 몰아낸 이 땅에 펼쳐질 인민의 락원을 구상하고계시였다.

아무리 전쟁시기라고 하여도 어찌 우리 수령님께 올리는 식사를 소홀히 할수 있겠는가.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시고 밤낮이 따로 없이 일하시는 어머니수령님의 건강과 안면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제일 큰 소원이었다.

하긴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마음도 마다하시고 수명과 인민이 고크를 같이할 때만이 혁명과 전쟁은 승리한다고 하시며 일군들과 인민들에게 심신을 북돋아주시였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이렇듯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곳에서 그처럼 간고한 시련의 시기를 거치며 최고사령부 간부회의를 서시고 후퇴하여 들어오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에게 후퇴의 전략적목적을 알려 주고 배짱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해주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야외식당으로 리용하는 집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산골의 청신한 대기와 주변경치에 대하여 알아보시면서 이곳에 휴식터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여름과 겨울철에 근로자들이 휴식할수 있는 휴식터를 세우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어려운 전쟁시기이고 일시적인 후퇴를 하고있던 때여서 모두가 전쟁의 운명에 대하여서만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근로자들이 경치좋은 곳에서 마음껏 휴식도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미국놈들을 몰아낸 이 땅에 펼쳐질 인민의 락원을 구상하고계시였다.

에서 단련된 투사들을 전선으로 파견하시였다. 최고사령관 명명들과 수많은 문건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기 옥천에서 하달하시고 비준해주시고도 한다.

전쟁기간에도 신문물 비롯한 출판물을 중단없이 발간할데 대한 문제, 전사 인민보건의사업과 관련한 문제, 전선에서 싸우던 인민군군인들을 무사히 후퇴시키데 대한 문제, 원수들의 폭격에 한 사람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반항공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후퇴하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돌봐주데 대한 문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고 또 비록 옥천에 며칠밖에 계시지 않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러 부분의 사업과 군대와 인민의 생명건강에 대하여서까지 깊이 마음쓰시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였다.

력사의 그 나날로부터 세월은 어느덧 달이듯 흘렀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 여전히 계속되고있으며 인간의 의지를 검증하는 시련과 난관도 계속되고있는 오늘 혁명적신념과 의지는 우리모두가 더 굳게 간직하고 살아야 할 추후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원동력이다.

하기에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그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가가 지나야 할 신념에 대하여 이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혁명은 곧 신념입니다. 신념을 버리면 혁명은 나날에 죽어갑니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몇몇발을 두십시오. ...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높이 발휘된 혁명적신념과 의지가 세와 새대를 이어, 년대와 년대를 이어 오늘에도 더 높이 발휘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력사의 땅 옥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신 혁명적신념과 의지, 담력과 기상이 빛발친 이 불멸의 혁명사적지는 오늘도 천만군민에게 새겨주고있다.

우리 수령님처럼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가 되자고. **본사기자 백영미**

가렬히 처절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 전선원호에 떨치신 인민들과 고크를 같이하시면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인민군전사들이 싸우고있는 고지를 찾으신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을 찾아 머나먼 전진길을 떠나시였다.

전선으로 기운차게 달려간 자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갑자기 멎었다.

며칠째 그치지 않고 내린 비로 길옆에 있는 개울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길을 통칭 흩어놓은것이였다.

호위성원들은 차길을 마련하기 위해 안락까지 뛰여다녔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발을 벗으시고 물에 들어 서시였다.

4월이라고는 하지만 산골마을에서 얼음같이 차고 아직 새겨놓지 않은 물결이 물결이도 가능할수 없었다.

호위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위협하다고 말할 줄 모르며 그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도 시간을 지체하면 안된다. 우리가 이 찬 개울물을 한번 건너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 고지의 전사들은 이 시각도 목숨걸고 미제와 싸우고있다고 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달래시였다.

드디어 가파로운 고개길과 험한 물길을 헤치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차는 동해지구 의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전선에서 비움은 전사들의 감각과 격정은 호에 떨치신 인민들과 고크를 같이하시면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인민군전사들이 싸우고있는 고지를 찾으신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을 찾아 머나먼 전진길을 떠나시였다.

전선으로 기운차게 달려간 자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갑자기 멎었다.

며칠째 그치지 않고 내린 비로 길옆에 있는 개울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길을 통칭 흩어놓은것이였다.

호위성원들은 차길을 마련하기 위해 안락까지 뛰여다녔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발을 벗으시고 물에 들어 서시였다.

4월이라고는 하지만 산골마을에서 얼음같이 차고 아직 새겨놓지 않은 물결이 물결이도 가능할수 없었다.

호위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위협하다고 말할 줄 모르며 그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도 시간을 지체하면 안된다. 우리가 이 찬 개울물을 한번 건너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 고지의 전사들은 이 시각도 목숨걸고 미제와 싸우고있다고 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달래시였다.

드디어 가파로운 고개길과 험한 물길을 헤치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차는 동해지구 의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인민군전사들이 싸우고있는 고지를 찾으신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가렬히 처절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 전선원호에 떨치신 인민들과 고크를 같이하시면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을 찾아 머나먼 전진길을 떠나시였다.

전선으로 기운차게 달려간 자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갑자기 멎었다.

며칠째 그치지 않고 내린 비로 길옆에 있는 개울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길을 통칭 흩어놓은것이였다.

호위성원들은 차길을 마련하기 위해 안락까지 뛰여다녔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발을 벗으시고 물에 들어 서시였다.

4월이라고는 하지만 산골마을에서 얼음같이 차고 아직 새겨놓지 않은 물결이 물결이도 가능할수 없었다.

호위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위협하다고 말할 줄 모르며 그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도 시간을 지체하면 안된다. 우리가 이 찬 개울물을 한번 건너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 고지의 전사들은 이 시각도 목숨걸고 미제와 싸우고있다고 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달래시였다.

드디어 가파로운 고개길과 험한 물길을 헤치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차는 동해지구 의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을 찾아 머나먼 전진길을 떠나시였다.

전선으로 기운차게 달려간 자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갑자기 멎었다.

며칠째 그치지 않고 내린 비로 길옆에 있는 개울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길을 통칭 흩어놓은것이였다.

호위성원들은 차길을 마련하기 위해 안락까지 뛰여다녔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발을 벗으시고 물에 들어 서시였다.

4월이라고는 하지만 산골마을에서 얼음같이 차고 아직 새겨놓지 않은 물결이 물결이도 가능할수 없었다.

호위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위협하다고 말할 줄 모르며 그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도 시간을 지체하면 안된다. 우리가 이 찬 개울물을 한번 건너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 고지의 전사들은 이 시각도 목숨걸고 미제와 싸우고있다고 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달래시였다.

드디어 가파로운 고개길과 험한 물길을 헤치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차는 동해지구 의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을 찾아 머나먼 전진길을 떠나시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쿠웨이트국가 추장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쿠웨이트 국가 추장 사바흐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흐 전하

나는 최근 귀국의 이슬람교사원에서 있는 폭탄테러행위로 무고한 주민들속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불행한 소식이 접하여 당심과 귀국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자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니다.

은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한 릋장이며 우리는 귀국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안정과 민족적합을 이룩하기 위한 당심과 친선적인 쿠웨이트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4(2015)년 6월 27일 평양

신천군 발전리당 위원회에서 당원들 의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

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위대성교양사업 의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주별, 월별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구체

복판팜은 계절이 일러서 한가위 지단지 열흘인데 벌써 눈이 올았다. 두만강연안에도 아침부터 흐린 날씨에 맨날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이날은 《만주사변기념일》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일제놈들이 《국경비전을 철통같이 강화》하고있었다.

이제껏 동무위에 또네 동무가 있었는데 그들은 강 이쪽(훈춘쪽)기슭에 숨어있다가 만일의 경우에 세 동무를 옹호할 임무를 맡고있었다.

배는 잠시후에 두만강을 건너서 통탄나루에 이르렀다. 나루가에는 순사 두놈과 세관관리 한놈이 기다리고있었다가 저마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증명을 따져보고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놈들은 두만강을 건너다니는 인민들이 소금 환관, 성냥 한갑도 마음대로 가지고다니지 못하게 하였으며 만일 이런것들이 발견되는 날에는 그것을 무작정 빼앗고 《벌금》까지 받아먹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조선사람들이 세 나라, 제 땅을 찾아가는데도 어찌 오느냐고 객객처럼 따귀를 때리고 구두발로 정강이를 걸여차기

3 일간이 전하는 영웅적방위자들의 위훈

지난 3월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신도방어중대를 시찰하시어 당중앙의 뜨락과 잇닿아있는 동해판문의 전초기지인 신도방어중대를 난공불락의 요새, 오늘의 월미도로 확고히 전방시킴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혁명활동소식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월미도를 생각하였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시다. 이제 뒷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시다. 이제 뒷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시다. 이제 뒷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시다. 이제 뒷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시다. 이제 뒷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시다. 이제 뒷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시다. 이제 뒷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시다. 이제 뒷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시다. 이제 뒷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시다. 이제 뒷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시다. 이제 뒷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시다. 이제 뒷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시다. 이제 뒷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강원남

천출명장을 모시어 무적의 기상 떨치는 혁명강군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굳지않고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력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조선인민군 조선군단 제1세대 보병사단 직속부대들의 비탄중사격기대회가 러친 새해 첫 초성의 메리기가 끊임없이 울려다지며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방공군 근위 제1항공 및 방공사단관하 추격기, 폭격기전대들의 비행전투훈련,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리격전대 장갑보병부대들의 저울승도하공격연습, 적 항공도합을 가산해 해상목표에 대한 중대타격훈련, 선화전력적 대결을 위한 연습, 적함선집단을 먼거리에서 미움먹은대로 타격할수 있게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된 신형탄환신로켓의 시험발사, 선군조선의 자주군과 존엄을 해리려는 적대세력들을 일제의 수역에서 타격소탕할수 있는 세계적수준의 전략무기인 전략정수함 판도판의 수증기발사...

활화산에서 뿜어나오는 거대한 용암마냥 선군의 거대한 힘이 장쾌하게 분출하고있다. 천하를 울리는 백두의 피성이 놀란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천둥에 떠는 장중이들처럼 어쩔바를 몰라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전개된 수많은 침략의 전초기지들과 방진기지를 단숨에 날려버린 강력한 전쟁역력들을 갖춘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막강한 타격력에 분별없이 너털거리던 호전정수함들은 기가 질리어 움츠러들지 못하고있다.

《김정은1위인민군의 당대인 성격이 반영된 훈령, 《보완책이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 《북이 2015년을 통

일대전환성의 해로 선포한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등의 아우성이 적진속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북쪽 함포수비수군 세계 1위》,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할수 있는 잠수함 보유》, 《300mm신형방사포 서울을 함락할수 있을 정도로 위력》, 《세계가 알지 못하는 신형류탄방사기 보유》 등의 충격적인 보도들로 온 남조선땅이 죽가아빠듯 하고있다.

우리의 초정밀타격수단들이 하늘을 헤쳐가는 이 장쾌한 광경에, 원수들의 본저지들을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초토화하고 정공노드같이 정밀할 일당백사수들의 만장약탄 정사정신에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되어있다. 미제가 아직까지 못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율, 쓰러선 참패를 우리의 전쟁을 통하여 그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자.

백두산혁명강군의 초강정신은 미국의 공화발에 짓밟히고 불안과 울분속에 살아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로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벌써 조선의 전승광장을 그려보고있다.

천출명장의 명도하에 제국주의련합체를 드세게 제압하며 우리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화신용사들에게 온 겨레와 인류가 뜨거운 경의를 보내고있다.

이 땅에 활착한 전쟁의 제인이 들이닥치었던 1950년 6월의 그날보다 월 65일이 지난 오늘 조선반도에 펼쳐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참으로 기묘하고있다. 세계《회강》을 떠돌던 제국주의파수를 무릎 꿇게 하던 그때처럼 조선은 오늘도 미제를 호되게 답대기며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있다.

이 땅에 활착한 전쟁의 제인이 들이닥치었던 1950년 6월의 그날보다 월 65일이 지난 오늘 조선반도에 펼쳐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참으로 기묘하고있다. 세계《회강》을 떠돌던 제국주의파수를 무릎 꿇게 하던 그때처럼 조선은 오늘도 미제를 호되게 답대기며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있다.

이 땅에 활착한 전쟁의 제인이 들이닥치었던 1950년 6월의 그날보다 월 65일이 지난 오늘 조선반도에 펼쳐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참으로 기묘하고있다. 세계《회강》을 떠돌던 제국주의파수를 무릎 꿇게 하던 그때처럼 조선은 오늘도 미제를 호되게 답대기며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있다.

자기 힘으로 지켜가는 존엄과 자주권이 이처럼 영예로움것이며 필승의 군력으로 담보되는 포부와 미배 또한 그치지않고 휘황찬란한것이다.

백두명장들의 손길아래 수십년세월 총포성검은 반미대결전을 벌여오면서 오직 승리만을 명처는 최정예군대, 상용무기에 의한 국지전이나 전면전쟁, 전자전과 핵전쟁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대결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타격수단들과 필승의 전법을 완비한 강군, 바로 이것이 존엄은 백두산혁명강군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평가이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미제가 여기서기 끌고다니며 자들의 군사적위력을 뽐내는 최선해방공포합들을 한갓 육신하고 비대한 벌레동물로밖에 보지 않는 당력과 배경의 강자대이다.

불세출의 선군명장들을 대를 이어 모시웠으며 우리 인민군대는 이처럼 과다세한 역사와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초강정신은 미국의 공화발에 짓밟히고 불안과 울분속에 살아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로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벌써 조선의 전승광장을 그려보고있다.

천출명장의 명도하에 제국주의련합체를 드세게 제압하며 우리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화신용사들에게 온 겨레와 인류가 뜨거운 경의를 보내고있다.

이 땅에 활착한 전쟁의 제인이 들이닥치었던 1950년 6월의 그날보다 월 65일이 지난 오늘 조선반도에 펼쳐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참으로 기묘하고있다. 세계《회강》을 떠돌던 제국주의파수를 무릎 꿇게 하던 그때처럼 조선은 오늘도 미제를 호되게 답대기며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있다.

이 땅에 활착한 전쟁의 제인이 들이닥치었던 1950년 6월의 그날보다 월 65일이 지난 오늘 조선반도에 펼쳐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참으로 기묘하고있다. 세계《회강》을 떠돌던 제국주의파수를 무릎 꿇게 하던 그때처럼 조선은 오늘도 미제를 호되게 답대기며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있다.

한 미제의 기를 순식간에 꺾어놓았고 호전광들이 지난 수십년간 방대한 두뇌진을 통하여 품어들어 작성한 부침작전계획들도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렸다.

탁월한 명장됨에 약속이 있을수 없는 법이다. 백두의 혼연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치는 속에 반드시 치르게 될 앞으로의 싸움에서 미제의 생조기와 추종세력들의 기발을 걸베쳐버린 만물들의 기개가 전군에 차민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만을 굳게 믿고 충직하게 받들어온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오늘날의 빨치산 군사적진영에 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백두의 흰눈처럼 순결한 광선과 의리로 받들어모시며 그이의 힘찬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철의 대오도 도저히 끊어쳐지고있다.

선군이 안아온 이 장쾌한 현실은 자주의 평화와 부라는 나라와 민족들이 자국의 속력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명백한 대답을 주고있다.

제국주의호전광들은 자들의 침단체사과학에 대하여 오시내고있다. 하지만 군사력대비에서 순수 물리적, 과학기술적경쟁에서 우선시할수 없으며 그것은 청순한 신승공화국과 발흥까지 무장한 제국주의연합체사회의 전면대결전인것인 지난 조선전쟁에서 이미 확증되었다.

전쟁은 결코 무장장비의 대결, 물리적 대결만이 아니다. 사람의 정신력, 사상의 대결이다. 자기의의에 대한 열렬한 사랑,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옹성같이 뭉친 우리 천만민국의 힘은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당해낼수 없다.

우리의 인민군에는 무적의 용맹 필진 자랑스러운 근위부대들이 많다. 위대한 전승사에 그 이름 전승사에 기록된 근위부대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치열한 반미대결전에서 빛나는 군공과 위훈으로 줄

기차게 이어지고있다. 모든 군인들이 필명 나는 일당백사육군, 백두산호랑이로, 모든 부대들이 강철의 근위부대들로 자라나고있다.

몇해전 전 피뢰군방부 장관이 피뢰장성들의 모임에서 북과 맞붙는 경우 자들이 완전배배하고 싶도록 소동이 일어났던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남조선장군 미제전략군사령관이 괴뢰폭군 협회강연에서 《김정은1위인민군은 자신감에 차있으며 예측하기 어렵다.》,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비대대정적》이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리고 말하여 국제에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어쨌든 이는 고백이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그 무슨 《증정》을 떠벌리며 허세를 부리고있지만 그것으로는 날로 커가는 공포와 불안을 가질수 없다.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부침전쟁도 발전됨에 피는이 되어 날뛰는 원수들은 폭죽이 알아야 한다.

이 땅에는 정예한 원수들의 명명일하에 천만민군이 산악같이 일어나도쳐 나가는 불태의 일심단결, 세계혁명의 이 정치적사적합에 고난속에 사지고도 도져진 배럴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기, 그 어떤 강도도 당대에 쓸어버릴수 있는 무적막강한 백두산호랑이의 위력이 있다.

온갖 력사의 반동들의 비열한 도전과 암살행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용감하고 횡포해지고있는 엄혹한 속에서도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높이 모신 조선은 그떡없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만일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65년전의 그날처럼 또다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내다낸 천출명장의 명도를 받는 백두산혁명강군은 침략자, 도발자들을 씨도 없이 소탕버리고 거대한 세계속권인 이 땅의 영원한 평화와 조국통일을 안아오야말것이다. **허영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구면을 열어나가는한다》를 15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월남신문 《년전》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15돐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북남사이에서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남조선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전쟁행위를 당장 중지하며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장벽들을 대담하게 철거할것과 공화국을 자국하고

협력을 일체 도발행위를 견여치울것을 요구하였다. 이 나라 신문 《월남 뉴스》,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 싱가포르의 신문 《스트레이츠 타임》, TV《아시아소식통로》, 캄보디아신문 《프라스마이 캄보자》, 인디아신문 《에이션 에이취》, 에리트레의 사다 엘 발라드 TV방송, 우루과이 세, 에이스 36까지 오 켈베나리오 방송, 뽤스카인테레트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추진협회,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브라질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편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도 《조선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구면을 열어나갈것을 호소》 등의 제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의 진문 또는 요지를 보도하였다.

오스트리아 단체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할것을 촉구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현들의 연대성위원회가 15일 오스트리아주에 남조선대사관에 향의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북남공동선언발표 15째돐을 맞아 남조선당국이 미제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여 벌리는 전쟁행위를 비롯한 모든 대결소동들을 견여치울것을 촉구한다

적하였다. 지금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해 모두가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한것으로 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촉구한다. 우리는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정세파국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의 동족대결책동이 《인권》의 간판에 더한속 로공화되고있다. 얼마전 괴뢰집권자는 반공화국 《인권》모락기구인 유엔 《북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된것과 관련하여 《인권의 실질적개선》을 위한 《구약장》이니, 《중요한 역할》이니 뽀니 하는 거짓말을 붙여냈다. 이보다 앞서 괴뢰외교부장 윤병성은 유엔 《북인권사무소》개소식이라해서 《역사적인 리정령이 되는 날》이라느니, 《지원을 이기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 기업을 트하였다. 괴뢰통일부장 홍용표 역시 유엔 《북인권사무소》개소식 놓고 《기대》니, 《필요한 지원과 협력》이니 하는따위의 말발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반공화국주류파 동족대결에 미쳐버린 열간당동들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괴뢰집권자와 그 수하종대들이 유엔 《북인권사무소》설치를 놓고 저저마다 환성을 지르며 악당질을 해댄것은 물론이요 《세계통일》통계가 꼭 뽀어찬자들의 분별없는 망언이다.

모락소동이 극도에 이르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남조선설치가 대화와 평화, 북남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최근영리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인권개선에 기여》한다것은 도대체 무슨 도깨비같은 수작인가. 나라와 민족, 부모처자까지 버리고 달아난 인간중물들이 오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것과 관련하여 27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97호를 발표하였다.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것자체가 존엄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부정하면서 《인권》모락으로 반공화국암살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분순한 모락기구이라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불법성과 도발적성격으로 하여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이 반공화국모락기구를 자국에 설치하는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괴뢰집권자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성수를 들어 환영하며 남조선에 서슴없이 끌어들이었다. 해마다 국제무대에서 외세와 작당하여 우리를 모함하고 암살하기 위해 《북인권사무소》 조작에 열을 올리는것으로는 성치치 않아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오물단지들 서울의 한복판에 들어앉았것이다. 이로써 집권 초기부터 《북인권》문제를 대결정책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라 내세우며 우리 북남대결에 광범해은 현 괴뢰집권세력은 남조선에서 반공화국 《인권》모락의 국제적거점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계를 직접 겨냥한 특대형도발로서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락소동이 극도에 이르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남조선설치가 대화와 평화, 북남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최근영리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인권개선에 기여》한다것은 도대체 무슨 도깨비같은 수작인가. 나라와 민족, 부모처자까지 버리고 달아난 인간중물들이 오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것과 관련하여 27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97호를 발표하였다.

유엔 《북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동지를 틀게 됴므로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을 맞게 되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 《인권》모락으로 날로 기승을 부리는 괴뢰집권대장이 지게 될것이다.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종착점은 전쟁이다. 괴뢰집권세력은 도발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자들의 비참한 자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최철순**

추악한 정치적목적을 위해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는 박근혜패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할것이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근혜패당이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악랄하게 대결장관을 비롯한 괴뢰패당은 우리의 병리적본을 악랄하게 협동하면서 《북핵은 고립과 체제만을 가져올수》라느니, 《시대착오적》이니 뽀니 하는 악당질을 공공연히 휘둘러왔다.

최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더욱 악랄하게 대결장관을 비롯한 괴뢰패당은 우리의 병리적본을 악랄하게 협동하면서 《북핵은 고립과 체제만을 가져올수》라느니, 《시대착오적》이니 뽀니 하는 악당질을 공공연히 휘둘러왔다.

최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더욱 악랄하게 대결장관을 비롯한 괴뢰패당은 우리의 병리적본을 악랄하게 협동하면서 《북핵은 고립과 체제만을 가져올수》라느니, 《시대착오적》이니 뽀니 하는 악당질을 공공연히 휘둘러왔다.

최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더욱 악랄하게 대결장관을 비롯한 괴뢰패당은 우리의 병리적본을 악랄하게 협동하면서 《북핵은 고립과 체제만을 가져올수》라느니, 《시대착오적》이니 뽀니 하는 악당질을 공공연히 휘둘러왔다.

미, 일장간과의 군사적협력을 강화하며 열을 올리고있으며 박근혜와 미국주류층,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괴뢰패당은 우리의 병리적본을 악랄하게 협동하면서 《북핵은 고립과 체제만을 가져올수》라느니, 《시대착오적》이니 뽀니 하는 악당질을 공공연히 휘둘러왔다.

최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더욱 악랄하게 대결장관을 비롯한 괴뢰패당은 우리의 병리적본을 악랄하게 협동하면서 《북핵은 고립과 체제만을 가져올수》라느니, 《시대착오적》이니 뽀니 하는 악당질을 공공연히 휘둘러왔다.

최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더욱 악랄하게 대결장관을 비롯한 괴뢰패당은 우리의 병리적본을 악랄하게 협동하면서 《북핵은 고립과 체제만을 가져올수》라느니, 《시대착오적》이니 뽀니 하는 악당질을 공공연히 휘둘러왔다.

최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더욱 악랄하게 대결장관을 비롯한 괴뢰패당은 우리의 병리적본을 악랄하게 협동하면서 《북핵은 고립과 체제만을 가져올수》라느니, 《시대착오적》이니 뽀니 하는 악당질을 공공연히 휘둘러왔다.

침적됨장에 전면도전해나선 국악인 당동이며 북남관계를 더 이상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파국을 초래하는 반민족적책동행위이다. 집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반공화국대결에서 출력을 찾아보려고 발악하는것은 역대 괴뢰통치배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지금 남조선은 치명적인 중동호흡기중추군(메르스)전염병이 전지역을 휩쓸고 사망자, 감염자, 격리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는 속에 사회전체가 걸잡을수 없이 파멸의 나락으로 끌려들어지고있다.

대우기 《유신》독재체제를 기어오르 황황시킴은 박근혜의 《국회법개정안》거부반동으로 집권대결의 내부순돈과 여야정치세력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통치위기는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

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독단과 전

황, 부패부능과 반민적악정으로 온 사회를 죽음의 공포지대, 이수라장으로 전락시킨 박근혜패당을 단호히 징벌하는 목소리가 련일 터져나오고있다.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박근혜패당은 북남관계를 최대로 악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배반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도발소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당고있다. 박근혜패당이 지금과 같이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대결을 계속추구한다면 북남관계가 언제 개개신될수 없고 전쟁까지 초래될것이다.

우리는 추악한 정치적목적을 위해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파란시키고 전쟁을 고취하는 박

근혜패당의 도발적행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할것이다.

괴뢰패당이 《세계》요, 《압박》이요, 《선제타격》이요 뽀니 하는 가소로운 입방아질로 그 누구를 놀래울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지금 우리의 백두산혁명강군은 침략자 미제남조선당국과 함께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괴뢰패당을 무자비하게 초토화할 목적의 의지를 강철소동들에 반영하고있고도의 격동상태에 있다.

도발자들에게 차제질것은 무자비한 징벌과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 괴뢰패당이 동족대결에 광범할수록 처참한 종말의 시간만큼 더욱 앞당기게 될뿐이다.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경제성장전망
쿠바에서 상반기에 국내총생산이 4%이상 성장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사망공급과 제조업, 건설, 무역부문에서 성과들이 이루어지고있다.

여러 나라들 협조
캄보자, 라오스, 만나, 캄보자 22일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며 지역적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협력할데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보다 앞서 20일 탄자니아

와 잠비아는 도로수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두 나라사이에서 도로를 통한 화물수송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것이다.

농업발전조치
브라질정부가 22일 새로운 농업발전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2015년-2016년 농사시절에 소규모농장들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액이 그전 농사시절에 비해 20%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나라의 농업생산을 높이고 농촌주목들의 수익을 높여주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핵무기전파방지에 대해 떠들 체면이 있는가

미당국자들은 일반 버려진 핵무기전파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느니, 수단과 방법을 따르하여 막아야 한다느니 하며 부산-대를 늘어내고있다. 그런가하면 저들에게 고분고분 불하지 않는 나라들을 적어가며 핵무기전파방지를 위한 협조가 있다고 하면서 그 때문에 핵군비경쟁이 야기되고 핵무기전파방지체가 있다고 마니나하고있고 되어 엄청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리고는 마치도 저들이 핵무기전파방지에서 세계적인 《모범》인것처럼 묘사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무성은 저들이 핵무기전파방지 및 군축분야에서 협조적 의지를 표시하고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야말로 첩면피하기 짝이 없다.

사실 세계적인 핵군비경쟁, 핵무기전파에 대해 논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체결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없어지지 않

고 파괴력이 훨씬 더 큰 현대화된 핵무기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조약상 핵군축의무를 저버린 미국이 그에 배치되게 생동해온데 있다. 핵무기를 세계제제전략실현을 위한 기구 등으로 삼고있는 미국은 지금까지 방대한 자금으로 방장하면서 새로운 핵무기들을 개발, 생산하고 그 현대화를 다그쳐왔다. 미국은 핵무기를 세계 여러 지역에 배비해놓고 비외에 거슬러는 나라들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이로 하여 세계에는 핵군비경쟁과 핵전쟁의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세계적인 핵무기전파방지체계를 파괴한 주범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들에 대한 통제권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누구에게 넘겨줄수 없으며 핵무기제조기술을 남에게 이전할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행동하고있는가. 이번에도 미국무성이 보고서를 발표한 후 로씨야는

미국이 나토성원국들과 공동핵계획을 작성하고 핵무기사용훈련을 벌리고있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미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위반행위를 비난하였다. 이것은 웅담한것이다. 미국은 핵대결으로 핵문제에서 이종기준을 적용하면서 세계적 핵무기전파방지체계를 파괴하였다.

오늘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술한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것도 다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위반하고 그것을 비호하고 묵인, 협력한 데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만 놓고보자. 1956년 중동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미국은 이스라엘의 원자력개발에 《원조》를 주기 로 결정하고 1957년과 1958년에 원자물리학자들을 파견하였다. 1960년대 중엽에는 핵무기의 기본원리인 고농축우라늄을 약 100kg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었다. 디모나핵센터에서 근무한바 있는 이스라엘 핵과학자 바누누

이 《협정》을 명분으로 삼고 일본정부가 성소에법칙, 강제징용 등 일체의 만행을 부인하며 문제의 해결을 회피해오도 또한 미국이 일본이 핵의 력사기록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고 단체들은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책임을 회면하고 군국주의부활과 전쟁의 길로 가고있는 일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가 과거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며 《협정》을 폐기하야 할것이라고 단체들은 요구하였다.

남조선집권자는 박정희가 맺은 굴욕협정이 일본정부가 범죄청산을 의면한 구실을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단체들은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 로씨야의 주변 나라들에 중무기들을 배비하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미국이 로씨야의 주변 나라들에 중무기들을 배비하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최근 미국방장관은 중무기들이 벨라루스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 폴스카, 크로니아에 배비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나라들의 령토에 배비하려는 무기들은중에는 250대의 땅크와 《브레德利》갑상차, 자행파사포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로씨야국방성의 한 관리리는 자기 나라와의 국경선에서 위치한 나라들에서의 무기배비는 맹천이며 미국의 가장 공격적인 행위 로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의 이와 같은 도발적인 책동은 로씨야의 강한 반발과 대응을 초래하게 될것이며 그로 하여 지역정세는 더욱 격화될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